

민주 “민주주의 지키겠다” 국힘 “통합이 시대적 소명”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모식...여야 지도부 봉하마을 총집결

아침 일찍부터 1만2000여명 인파 몰려 주변 잔디밭까지 참배객 북적 문 전 대통령·한덕수 총리·김대기 비서실장·참여정부 인사 대거 참석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이자 13주기 추모식이 열린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는 온종일 참배객들 발길이 이어졌다.

봉하로 향하는 길은 아침 일찍부터 계속됐다. 묘역 현장 안내를 맡은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아침 8시쯤 출근했는데 주차장이 꽉 차 있었고, 참배객들도 이른 아침부터 계속 묘역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 동호회원, 노란색이나 파란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커플, 유모차를 동반한 젊은 부부,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신사 등 세대를 불문한 참배객들이 묘역을 찾았다.

참배객들은 노 전 대통령 묘역에 하얀 국화꽃을 바치거나 노란색 바람개비, 풍선을 들고 묵념했다. 노무현재단이 대통령 묘역 옆 생태문화공원 잔디동산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준비한 의자는 3000여개. 오후 2시 추모식 시작 전부터 좌석은 다 찼다. 행사장 주변 잔디밭까지 추모객들로 북적였다. 재단은 추모식이 끝난 직후인 오후 3시까지 1만 2000여 명이 봉하마을을 다녀갔을 것으로 추산했다. 여야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야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윤호중·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여권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진복 정무수석,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정 인사들이 자리했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

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노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이 시대적 소명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대·계층·지역 간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의 어려움과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출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현재 국회는 첨예한 갈등 속에 여야 협치를 찾을 수 없다”며 “소수에게도 말할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이 말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노 전 대통령이 소망했던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협치를 반드시 이룩하겠다”며 “삼가 고인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공화국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지방선거 운동 기간이지만 차분하고 엄숙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을 기리는 하루를 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노무현 정신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검찰 공화국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는 이 순간, 노 전 대통령의 ‘정의가 무너지 사회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되새긴다”고 했다. 이어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주에 맞설 수 있는 지방정부를 세워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서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盧 전 대통령 서거, 한국 정치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 “추도식에 참석하는 총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는 질문에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는 말씀을 (메시지에)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각별한 마음을 드러낸 바 있다. 대선 후보이던

지난 2월 5일 제주를 방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노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며 잠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 추모곡으로 많이 불리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부른 뒤 “대구지검에 있을 때,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때 내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말했다. “노무현 영화 보고 혼자 2시간 동안 울었다”는 부인 김

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 참석 등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추도식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봉하를 찾았다.

/임동욱 선임 기자 tuim@kwangju.co.kr

조승천 “박지현이 내부총질? 오히려 고마워해야”

“박 위원장 틀린 말 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조승천 의원은 23일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부총질’을 하고 있다는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박지현 위원장에 고마워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현입니다’에 출연해 “솔직히 박지현이 내부 총질했다? 총질한 거 뭐 있느냐. 저는 인정 못 한다. 못 할 말을 한 것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박 위원장이 최강욱 의원 성희롱 사건 진상규명을 지시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 같다”며 “그러면 민주당 특유의 ‘우리 편 감싸기 안 했다’고 내부총질이라는 얘기를 그럼 계속 ‘내로남불’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로남불이) 과연 우리 당 쇄신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과를 너무 많이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대해선 “사과할 일이 많으니까”라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과 요구, 최 의원 진상규명 촉구, ‘김수원박’ 임명 신중론 표명 등 당내 쇄신을 주장하며 소수 의견을 내 강성 의원 및 지지자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부 비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판하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고 써 박 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응수했다. /연합뉴스

봉하마을 찾은 文 전 대통령, 환호하는 시민들에 손 흔들며 인사

방명록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이자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제 시간보다 4시간 이른 오전 10시께 봉하마을에 도착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후 10여 일 만에 엄수된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행사에 참석한 후 처음으로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검은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 차

림이었다. 차에서 내린 문 전 대통령은 몇몇 시민들과 악수를 한 후 노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운영될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 (이하 체험관)을 관람했다.

체험관은 추모제에 맞춰 이날 하루 특별개관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8월 27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 50여분간 체험관을 둘러본 문 전 대통령은 밖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두 손을 모으거나 흔들면서 인사를 했다.

지지자들은 박수, 환호와 함께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연호했다.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머무는 사저로 향하던 문 전 대통령은 시민들이 “대통령님 여기 좀 보세요”라고 계속 외치자 방향을 바꿔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체험관 방명록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부산에서 왔다는 60대 여성은 “멀리서 문 전 대통령 뒷모습만 봤는데도 흐뭇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는 이날 봉하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에 반대하는 시민 서명을 받았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봄에 떠나는 그린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